

# 사회적 경제 창업아카데미 운영

### 무주,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을기업 공유... 21일까지 40여명 접수

무주군이 사회적 경제 지원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위탁해 오는 24일부터 2019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7.10.)할 계획으로 21일까지 신청자를 받는다.

신청은 40여 명으로 이-메일(hongsubin@korea.kr)과 방문 및 팩스(063-320-2389), 우편(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대상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관심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최복미술관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2019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는 오는 24~25일, 7월 1~2일 4시간씩 총 16시간 동안 △ 사회적 경제의 이해를 비롯한 △사

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이해, △각 기업 사례들을 공유하게 된다.

7월 10일에는 기업현황과 비즈니스 모델 분석,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및 전환을 위한 멘토링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이 1:1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노상은 팀장은 "군은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찾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이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 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무주군 소재 사회적 기업은 5곳, 주민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은 7곳이 있으며, 무주군은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제품우선 구매, 5000만원 한도 내 수의계약 대상)하고 마을기업에는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비(1차 년도 최대 5000만원, 2차 년도 3000만원, 3차 년도 2000만원 지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사회적·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와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민 김 모 씨(53)는 "평소 사회적 기업에 관심은 많았는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해 아쉬웠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개념부터 해당 기업들의 사례들까지 꼼꼼히 살펴서 사회적 기업 창업에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 장수군, 기초수급 탈락자 생계급여 지원

### 중위소득의 30% 이하, 일반재산 9500만원 이하 가구

장수군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생계비 지원대상은 기초초과로 수급 탈락된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 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가구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복지부 선정기준(1인 가구 기준 252만원)보다 완화해 적용하고(1인 가구 273만원, 가구당 재산 3억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다.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일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20만4840원을 지급받게 된다.

김덕남 실장은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 진안군, 장마철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 폐수배출시설 무단 배출 등

진안군은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하절기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민간인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 측정 이행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

다. 특히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이나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 배출, 불법소각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조치하고, 방지시설

미가동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상습·교의적인 환경사범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며 "정정 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13일 무주군청 뒷마당에서 자활생산물장터가 열렸다.

## 물건 좋고, 믿을 수 있어 더 좋고

### 무주서 자활생산물장터 열려

13일 무주군청 뒷마당에서는 자활생산물장터가 열렸다. 이날 장터에는 무주지역자활센터에서 내놓은 표고버섯과 전주 지역의 누룽지, 건강빵, EM천연비누, 우리 밀수제초코파이, 한지공예품을 비롯해 군산지역의 김부각과 향초, 익산지역의 귀금속과 가족제품, 두부, 김제지역의 팔가루, 작두공차, 완주지역의 들기름과 참기름, 표고간장, 임실지역의 구운소금과 강정, 고창지역의 두부과자, 부안지역의 우리쌀과자 등이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주민 박모(무주읍, 52)씨는 "군청에 불만이 있어 왔다가 장수경도 하고 기쁨이당, 버섯, 김부각 등 여러 가지 샀다"라며 "자활센

터와 관련된 사업단과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라 그런지 물건도 다 좋고 가격도 부담이 없어서 만족스러웠는데 다른 지역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보는 재미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자활생산물 장터는 지역 유통망 확대와 판로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하는 것으로, 각 지역 자활생산물의 전시와 홍보·판매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오늘 장터는 우리 군민들에게 자활생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판매 기회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중·고생 장수품의학당 및 장수학당 하계 참여생 모집

###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은 이달 25일까지 2019년 중·고학생 장수품의학당 및 장수학당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각 학교장 추천과 학생 신청으로 진행되며 장수품의학당과 장수학당 각각 100여명을 선정한다.

이번 하계 장수품의학당은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장수중학교에서 실시되며, 참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형 진도 탐색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새롭게 추진한다.

장수학당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장수고등학교에서 '방학특강', '주말인재특강', '찾아가는 심화

학습' 등을 진행해 우수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영수 재단이사는 "매년 장수품의학당 및 장수학당의 끊임없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학업 성취도의 연속성을 위해 장수품의학당과 장수학당의 상호 유기적인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은 관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063-350-2166)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기자

지역 매아리

## 주천면, 행락철 유원지 관리 만전

진안군 주천면(면장 안용남)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주민과 피서객들이 자주 찾는 유원지, 계곡, 공원 등 6개소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한다.

관리대책에 포함된 유원지는 주천생태공원, 무릉소공원, 낙발골 산림욕장, 솔밭, 제천대, 화다리 등 모두 6곳으로 전담 관리반을 배치하여 쓰레기 수거 및 간이화장실 청소 그리고 풀베기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에 따라 수심이 깊고, 급류나 와류가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수중암반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안전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주기적인 순찰과 안전지도를 병행하는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유원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악취 민원, 주차 시비, 불법물품 등 현장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면사무소에 상시 가동반을 편성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기자



## 진안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진안군은 13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평생학습지도자 등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인식과 기량을 함양하고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기획하였다.

참여자들은 2018년도 강원도 주민자치 대상에 선정된 고흥마을을 둘러보며 주민주도형 마을활성화사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또한 안동과학대학교 화사회 교수를 초빙하여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함경도 신행민이 정착한 아바이 마을을 둘러보며 신행민의 문화가 관광지로 재탄생한 사례와 그들의 공동체 사례를 배우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4월 강원도 산불로 지역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워크숍 장소를 강원도 속초로 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